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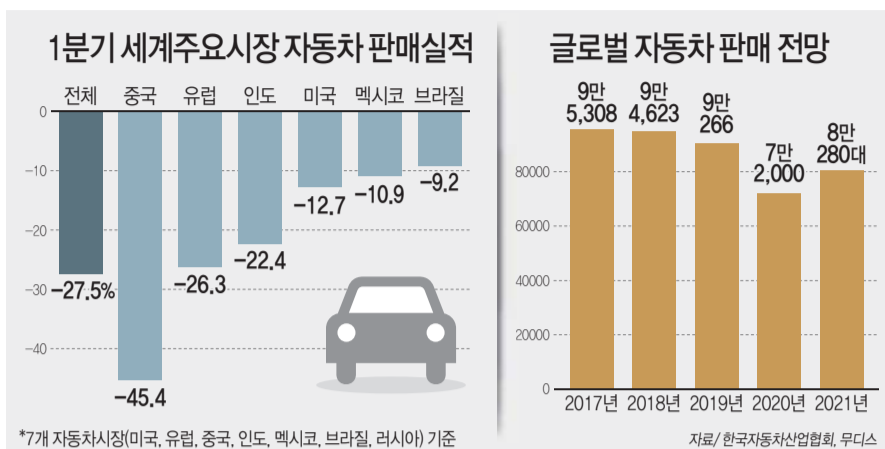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車 선진국의 자세

‘기업 살리기’ 동시에 ‘친환경車 체제’ 두토끼 잡기

전경련 ‘주요국 자동차산업 보고서’ 프랑스·스페인, 기업에 자금 지원 독일은 친환경 체제 전환에 총력 “한국도 과감한 정책 지원 필요”

세계 자동차 산업 선진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살리기’와 ‘친환경차 체제로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사업·인력 재편을 추진하면서도, 디지털 인력을 새로 뽑는 등 친환경 자동차 체제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자동차 회사를 살리고, 친환경차 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 주장했다.

1일 전경련이 공개한 ‘주요국 자동차 산업 지원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세계 주요시장 자동차 판매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27.5%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45.4%)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유럽(-26.3%), 인도(-22.4%) 순이

었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도 작년보다 2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경련은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의 경우 기업을 살리고 친환경 자동차 체제로 전환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

령이 직접 80억 유로(10조8000억원) 규모의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경영 위기에 빠진 르노자동차에 50억 유로(6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차 체제 전환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6000유로(807만원)에서 7000유로(942만원)로 인상하고, 내연기관차를 구입할 때도 3000유로(404만원)를 지급한다. 2023년까지 전국에 10만개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스페인 정부도 37억5000만 유로(5조원) 규모의 자동차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스페인에서는 부품 회사를 포함한 자동차 회사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등 약 27억 유로(3조6000억원)를 금융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독일도 친환경 체제 전환에 적극적이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3000유로(404만원)에서 6000유로(807만원)로 인상하고 충전 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경제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지금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부품사 지원에 정책이 집중됐었다”며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위기가자 산업체제 전환의 기회로 삼고 과감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위기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자율차를 위한 도로·통신 인프라 구축 등 미래차 산업에 대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디스플레이, ‘큐디’ 전환 가속화

큐디 설비 반입 본격화 내년 시가동 후 제품 생산

삼성디스플레이가 큐디(QD) 전환 작업을 본격화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7월 1일 충남 아산 사업장에서 ‘QD 설비 반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훈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과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0월 권택담 소장을 활용한 큐디 부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발표한 후, TV용 LCD를 생산하는 L8라인의 일부 설비를 철거하고 QD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클린룸 공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클린룸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8.5세대 증착기 등 큐디 설비를 들여오기 시작한 것. 하반기까지 셋업을 마무리하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 아산사업장에서 이동훈 사장(왼쪽 여덟번째)이 다른 관계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고 내년부터 단계별 시가동에 이어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는 생산라인 구축과 함께, 내년 프리미엄 TV 시장 진입을 위해 큐디 제품의 완성도와 양산성을 높이기 위한 막바지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도 전개 중이다.

최주선 대형사업부장은 이날 반입식

에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협력업체들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QD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경과를 설명하며 “지난 20여년간 축적해온 LCD 대형화 기술과 권택담 분야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화질의 QD디스플레이 양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한화테크윈 차세대 보안카메라 출시

한화테크윈이 1일 차세대 영상처리 SoC(통합칩) ‘와이즈넷7’을 탑재한 신형 보안 카메라(사진)를 출시했다.

차세대 보안 카메라 핵심 부품인 와이즈넷7은 한화테크윈이 자체 개발한 영상 처리 칩셋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한화테크윈이 유일하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신형 카메라는 최대 4K 고해상도 영상을 지원하고, 선명도와 색상 표현력을 높이는 ‘노이즈저감알고리즘’, ‘익스트림 역광보정’ 등 기능도 탑재됐다.

/양성운 기자

청바지 입고 출근... 롯데지주, 복장 자율화

‘일하는 방식 변화’ 유도 일환

롯데지주가 1일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장 자율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 전 임직원은 회사에서 근무 복장으로 정장, 비즈니스 캐주얼, 캐주얼 의류(라운드티, 청바지, 운동화 등) 등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다. 시간, 장소,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판단해 일할 때 가장 편한 복장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시행은 지난 6월 26일에 진행된 롯데지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통해 업무 효율을 증대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정됐다.

현재 자율복장제도는 롯데케미칼, 롯데컬처웍스, 롯데멤버스 등이 시행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을 권장했으며, 금요일만 자율 복장이 가능한 ‘캐주얼 데이’를 운영해 왔다.

한편 롯데지주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크게 변화되는 업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기 위해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전 임직원 대상 재택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 특성에 맞춰 일주일 중 자신이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 집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손희영 롯데지주 기업문화팀장은 “기존의 형식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개성을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복장을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레이싱부터 야구·축구·퍼즐까지 너도나도 캐주얼 게임에 ‘풍당’

넥슨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양대 마켓서 상위권 순위 점령 애니팡4·피파모바일도 흥행

“예전에 매일 즐기던 게임을 모바일로 하니 추억이 되살아난 느낌입니다. 그래픽도 PC에 비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니아층이 즐기던 모바일다중접속 온라인역할수행게임(MMORPG) 일련의 시장에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퍼즐 게임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1일 모바일 앱·순위 분석 사이트 게블루션에 따르면 넥슨의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구글플레이 기준 인기 순위 1위, 앱스토어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출시한 선데이토즈의 ‘애니팡4’는 애플 앱스토어 기준 인기순위 1위를 차지했다.

앱애니가 발표한 ‘2020 모바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은 지난해 전세계 게임 다운로드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케이드와 퍼즐 게임이 각각 47%, 21%다.

특히 지난 5월 출시한 넥슨의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역할수행게임(RPG)과 전략게임 위주의 시장에서 대중성 있는 캐주얼 장르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게임이 처음인 이용자들도 쉽고 간편하게 레이싱 장르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달 말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회를 연다. 넥슨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의 전국민 대회 프로젝트 ‘카러풀 스타컵’을 이달 말 실시할 예정이다. 인플루언서와 일반 유저가 팀을 이뤄 토너먼트에 참가해 모바일 레이싱 최강팀을 가리는 방식이다.

짧은 시간을 투입해 간단히 즐길 수 있는 퍼즐 게임도 인기다. 선데이토즈가 출시한 애니팡4는 시즌제로 나온 대표적인 캐주얼 게임이다. 퍼즐 플레이



‘카러풀 스타컵’ 참가자 모집 이미지. /넥슨

로 누구나 실시전 대전을 구현할 수 있다. 전작에 비해 길드 개념도 도입해 이용자들이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게임도 주목받고 있다.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에서 비스하는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2020’은 출시 후 지금까지 누적 1500만 다운로드 달성과 함께 구글과 애플 양대 마켓 국내 모바일 스포츠 게임 매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출시한 넥슨의 축구 게임 ‘피파 모바일’은 출시 이후 첫 주말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10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기준으로도 양대 마켓 상위 10위권 안에 안착했다.

오는 8일에는 넷마블의 신작 야구게임 ‘마구마구2020 모바일’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 마구마구2020 모바일은 15년간 넷마블이 서비스해 온 PC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으로, 핵심 개발진들이 투입돼 만든 모바일 야구 게임이다. 지난 달에 열린 온라인 쇼케이스는 누적 시청자가 반나절 만에 22만명을 돌파해 흥행 기대감을 불러넣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니아층이 형성된 MMORPG와 달리 캐주얼 게임은 조작이 간편하고, 익숙한 IP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 게임을 즐기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진입장벽이 낮다”며 “IP를 어떻게 활용하고 모바일에 녹여내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나민 기자 silkni@